

◆ 政府施策 ◆

通産部, 「2천년대 韓國産業 비전 · 전략」 확정 발표 - 尖端제품 輸出비중 50%넘어 -

반도체 · LCD · 신소재 등 첨단기술제품 수출이 연평균 16.5%씩 증가, 오는 2005년 경에는 우리나라 상품 총수출의 50%를 웃돌 전망이다. 또 자본재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일반기계류의 자급도가 95년 58%에서 2005년에는 69% 수준으로 크게 높아짐에 따라 우리산업의 만성적인 수입유발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장기 산업비전을 담은 ‘2천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산업정책심의회에 성정하고 확정 · 공포했다.

통산부가 마련한 장기비전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의 성장율이 실질 GDP성장율을 상회해 성장전인차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천년에 27.4%, 2005년에는 27.1%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93년 13.3%에서 2천년과 2005년에 각각 15.1%와 15.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 · 전자 · 기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조립산업 위주의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정착돼 생활관련산업과 기초소재산업의 비중은 93년 26%, 34%에서 2005년에는 18%, 27%로 하락하고 가공조립산업은 93년 40%에서 2005년 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컴퓨터 · 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 전자의료기기 등 첨단전자정보, 반도체, LCD,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 등 첨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은 2005년까지 연평균 16%의 빠른 성장을 보여 제조업내 생산비중이 28.23%에 달하고 우리나라 상품 총수출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수입구조도 큰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자본재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일반기계류의 자급도가 95년 58%에서 2005년에는 60%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산업의 만성적인 수입유발적 체질이 개선되고 가전제품 · 섬유류 · 신발 등 소비재의 경우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확대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입주종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96 제1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자 확정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5월 4일 1996년도 제1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자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금추천 심사위원회”를 열고 자본재 산업 전략품목 20개 과제에 대한 개발 사업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자본재 산업전략품목을 개발하고자 하여 이번 융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소요자금의 80%까지 연리 7.0%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선정된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96년도 제1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자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대표자 | 사업명 | 개발기간 | 융자지원액 |
|---------------|--------|-----------------------------------|----------------|--------|
| (주)우진산전 | 김영창 | IGBT를 이용한 정지형 인버터 | '96. 5~'97. 2 | 917 |
| 아세아전기공업(주) | 김봉현 | UPS 및 정류기 | '96. 7~'98. 12 | 298 |
| 서호전기(주) | 이상호 | 전동기 속도제어 제어기 | '96. 4~'99. 3 | 170 |
| (주)대원팜핀폼 | 허방옥 |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가열전기로 | '96. 6~'99. 5 | 972 |
| (주)인남 | 이장현 | 가로등소손 자동감시장치 | '96. 6~'98. 6 | 441 |
| LG산전(주) | 이종수 | 고차단 용량 모듈화 배선용 차단기 | '96. 6~'99. 5 | 949 |
| 코오롱엔지니어링(주) | 공용조 | 자기상호유도방식 전력 절감장치 | '96. 5~'98. 12 | 800 |
| (주)코리아하이테크 | 이종찬 | 평면케이블 | '96. 7~'98. 7 | 662 |
| (주)창일정공 | 방순영 외1 | 다차종 공용 도어조립 자동용접장치 | '96. 6~'98. 4 | 875 |
| 중원전기공업(주) | 김재용 | 다용도 가스개폐기 | '96. 6~'98. 11 | 754 |
| 삼화기연(주) | 김인석 | ASIC형 EOCR Master | '96. 7~'98. 6 | 360 |
| 남양기전 | 윤혜순 | 전기전선 접속단자 | '96. 5~'98. 4 | 250 |
| 보성중전기(주) | 임도수 | 2중 차폐실 전력휴즈 | '96. 3~'97. 12 | 315 |
| 동진모타공업(주) | 이수자 | 승용차 Heater 및 Cooler용 Blower Motor | '96. 1~'96. 12 | 302 |
| 상도전기(주) | 박성대 | 순시 과부하 차단기 | '96. 5~'97. 4 | 70 |
| (주)포스콘 | 차동해 | 1MVA급 IGBT Stack /Driver | '96. 7~'98. 6 | 399 |
| 우신정공(주) | 이효진 | 에어콘용 소형직류 전동기 | '96. 1~'97. 2 | 166 |
| 대경전기제작소 | 김영달 | 교류 소형클러치 브레이타입 기어드모타 | '96. 5~'97. 10 | 518 |
| 승림카본금속(주) | 조규석 | 25.8KV 저중용 다회로 개폐기용 조작기 | '96. 3~'97. 2 | 165 |
| 기인시스템(주) | 이기원 | 154 /345KV 송전용디지털 보호계전기 | '96. 5~'97. 12 | 617 |
| 20개 업체 20개 과제 | | | | 10,000 |

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성숙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생산 비중도 크게 늘어나 자동차의 경우 해외생산물량이 국내생산의 절반수준으로, 가전산업은 2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전·섬유·신발·생활용품 등 성숙산업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과 제품개발에 치중하고 해외투자를 통해 저부가가치제품 및 부품·원자재를 생산·조달하는 2원적 생산구조와 국제분업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술력 역시 기초기술 및 원천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생산기술은 물론 핵심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도체소재 기술과 선진국의 70% 수준에 이른 자동차·조선기술 등은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선진국의 40~60% 수준인 컴퓨터하드웨어·통신·전자제품·메카트로닉스·금속소재·세라믹소재·고분자소재·정밀화학소재 기술 등은 20~30년 내에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기술혁신능력이 향상돼 우리 힘으로 필요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기술혁신체제가 구축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다수 출현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및 산업기반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2005년 산업별 세계속의 위상을 발전단계별로 살펴보면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지식 집약적이면서 성장기에 있는 첨단전자정보, 자동차, 항공기, 일반기계, 환경, 생물산업 등은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하고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이미 성숙기에 있는 가전, 조선, 철강, 석유 화학 등은 현재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고 기술발전이 거의없는 경공업에 속하는 산업군은 세계 속의 위상이 저하될 전망이다.

한편 통산부는 이같은 장기 산업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산업활동 전반의 경쟁촉진 △산업기술력의 제고 △산업활동의 글로벌화 촉진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기반 확립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지방산업의 발전촉진 △소비자·수요 증시의 산업정책 강화 등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고기술분야와 정보산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분야 등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약화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위해 퇴출장벽을 철폐하고 인력이동의 원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신규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업감시활동의 강화, 불공정 내부거래의 시정 등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해 산업활동 전반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보험제도·기술담보평가제도 등을 도입, 기술혁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투자 허가대상의 축소, 해외투자대상국 제한 및 자기자금조달 비율 규제의 장기적 철폐 등으로 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大·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 경쟁제한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도원 무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전문 중소기업 등에 집중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장기·저리 설비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部시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少額輸出범위 3만弗이내로 확대

— 財經院, 외환관리규정개정案 6월 1일 시행 —

6월 1일부터 국내기업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폐지돼 해외지점 등은 용도에 관계 없이 현지금융을 조달 할 수 있게 된다. 국내기업이 자사의 해외지사에 지급하는 유지활동비의 규모가 기본경비·기타경비 등으로 구분돼 제한되고 있으나 이같은 제한이 폐지되는 대신 지급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팩토링 수입거래 기타품목의 건당 금액한도가 5만달러 이하에서 10만달러 이하로 높아진다. 수출대금 영수확인 등의 사후관리가 완전면제되는 소액수출의 범위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3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수출대금의 영수기한으로 신용장 또는 D/A방식의 경우 수출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송금방식의 경우 1년 이내로 각각 규제되고 있으나 이런 규제가 폐지된다.

수출입실적 1천만달러 이상 기업의 해외외화 보유한도가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 이내(최고 3억달러)에서 50% 이내(최고 5억달러)로 확대된다.

관세법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후 보세구역내에서 선박·항공기등에게 하역·예인·유류공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외화영수·보유·매각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실수요증명제도가 사실상 폐지돼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원貨·외화간 선물환거래와 2천만 달러 이상을 장외에서 금융선물거래를 할 때도 실수요 증명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안을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 위원회에 회부,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재경원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각종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중 제2단계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제2단계 조치중 대부분을 이제 시행만 남겨 놓고 있다.

中企廳, ISO 9000 인증 支援

— 215社 6개월간 기술지도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ISO 9000(국제품질 보증체제) 인증 획득을 위해 215개사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3~4월 269개 지도신청기업중 215개사를 선정, 26개 품질경영 진단지도기관을 활용, 6개월동안 ISO 9000 인증 획득 수준까지 기술지도와 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도가 완료된 기업은 국내의 유명 인증기관의 협조하에 종합평가 및 인증심사를 실시하는 등 ISO 9000 인증 획득이 용이하도록 지도와 인증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품질경영 도입이 취약한 건설분야 지원을 위해 건설분야 근무경험기술자 40명을 지도요원으로 위촉, 14개 중소건설사를 지도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인증획득 지원조치로 국내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업체수가 현재 660개(국내인증 업체수의 61%)에서 800개(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이 지도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품질관리 상태는 양호한 반면 내부품질검사, 품질기록의 관리, 경영자의 책임의식, 품질시스템의 구축등 국제적 품질경영은 취약한 상태에서 ISO 9000 인증 획득을 조급히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